

## 대전 충남지역 국민학교의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김연순, 박영숙, 순천향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우리나라의 국민학교 급식은 연차적으로 확대되어 '97년부터 전면 실시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현재 주로 시행되고 있는 단독조리방식은 조리장 시공시 소요되는 시설비 및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건비 등의 운영비 부담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학교급식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도시지역에서는 학생수가 수천 명인 다인수 학교의 급식이 늘어나고, 이 경우 대규모의 공동조리장을 설치하여 인근 몇 학교로 음식을 이동급식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대전 충남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운영 실태를 조사 비교하여, 학교급식이 확대되고 급식효과가 증대되도록 학교급식경영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으로는 대전 및 충청남도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학교 중에서 130학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학교의 급식담당자인 영양사로부터 회수한 설문지 113부를 전화 인터뷰로 보완해서 조사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 '94년 현재 대전과 충남지역의 국민학교 587개교의 40.4%, 학생의 28.5%가 급식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수준은 전국의 급식율 38.2%와 24.0%에 비해 약간 높은편이다. 급식형태별로는 도서벽지형 급식학교 57.8%, 농어촌형 41.5%, 도시형 25.6%였다.

조사대상학교는 도서벽지형 29개교, 농어촌형 74개교 및 도시형 10개교로서 급식방식은 단독조리교가 99개교, 공동관리교가 7개교 및 공동조리교가 7개교이었고 공동조리방식은 주로 도시형 급식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조사대상학교의 재학생수는 평균으로 도서벽지형 123.4명, 농어촌형 282.8명 및 도시형 931.3명였고, 단독조리나 공동관리방식의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급식을 제공받지만 공동조리 학교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해서 재학생수가 많은 학교가 공동조리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조리교의 경우라도 도시형 학교에서는 급식인원수가 1,640-2,200명으로 농어촌형보다 훨씬 많았다. 학생 1인당 급식비는 도서벽지형 634.3원, 농어촌형 750.1원 및 도시형 769.1원으로 평균 727.6원이었는데, 급식방식별로는 공동조리 학교의 급식비가 다른 두 방식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식학교에서의 급식종사자는 단독조리교에  $5.9 \pm 1.2$ 명, 공동관리교에  $7.0 \pm 1.4$ 명 및 공동조리교에  $11.4 \pm 2.3$ 명의 순으로서, 공동조리방식에서 급식종사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 공동관리방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식종사자 1인당의 급식인원수를 환산해 보면 단독조리 50.0명(급식인원/급식종사자 1인), 공동관리 32.8명 및 공동조리 135.0명으로서, 공동조리방식이 효율적인 급식관리방식임을 암시하였다.

설문지로 조사한 영양사의 업무내용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2항에 명시된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직무 ①~⑤를 근거로 하여 5가지 측면, 식단관리, 식품재료관리, 조리관리, 영양지도 및 위생지도의 5가지 측면에서 조사분석하였다.